

# 영상매체 시대의 책

박이문

포항공대 교수·철학

21세기 전후 문명의 가장 확실한 특징의 하나는 정보매체의 혁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매체는 주로 책으로 대표되는 인쇄물이었고, 정보는 정보매체로서 문자의 해독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책으로 대표되는 인쇄물 매체 대신에 TV, 인터넷 등과 같은 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대신해가고, 정보 교환은 문자적 기호의 개념적 의미 해석이 아니라 영상적 이미지의 감각적 접촉이라는 양식을 차츰 더 띠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틀림없이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TV,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영상매체의 급속한 발달·보급과 병행하여 고전적 정보매체로서 책의 발간도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하고 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책을 읽기보다 TV의 영상 앞에 앉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편지의 교환보다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작동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책이라는 형식을 갖춘 정보매체는 전자영상매체로 완전히 대체되어 골동품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예측이 설 수 있다.

영상매체에 의한 메시지는 순간적으로 그 이미지에 감각적인 반응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이다. 이런 점에서 영상매체는 책이 갖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순간적이고 단편적이며, 따라서 반성적이지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메시지의 전달은 피상적이다.

문자로 된 책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면 그것을 읽고 그 개념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지적 긴장과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비경제적이다. 그러나 전통적 매체에 의한 정보전달이 치르는 대가는 충분히 있다. 책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적 기호의 의미는 영상매체를 구성하는 기호로서의 이미지보다 정확할 수 있으며, 영상매체의 기호들이 언제나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구속되어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파악을 요청하는데 반해, 하나의 책에 기록된 기호들은 공시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이면서도 반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깊은 차원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책의 기호적 의미와 그러한 의미에 의한 정보전달의 기능은 성격상 어떤 상황에서도 영상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의 기능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영상매체가 지배되는 문명은 피상적이고, 피상적 문명의 의미는 공허함, 공허한 문명은 곧 문명의 죽음을 뜻한다. 깊은 의미를 지닌 문명, 인간적으로 보다 충족된 삶을 위해서 영상매체의 완전한 지배에 저항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영상매체가 발달하더라도 의미 있는 문명이 살아 있는 한 인쇄물에 의한 매체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명과 삶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의 없어서는 안될 기능을 의식하고, 보다 나은 책을 더 많이 창조하고, 책들에 담긴 풍요하고 깊은 가치를 발견하고 음미하는 습관을 잊지 않는 노력이 한결 더 요청된다. ❖

논문초 2 “만권 책 쌓아두고 고아한 취미생활”  
조선 후기 서적수입과 장서가들...강명관 교수 논문에서

특집 4 한국인·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5 소설로 읽는 인류의 발자취  
6 미래의 길 밝히는 역사의 가로등-이권우  
7 《최초의 인간 루시》를 읽고-주일우

출판화제 8 눈 앞에 펼쳐지는 ‘사이버’의 세계  
9 뛰어난 스페인어권 문학 활발히 소개  
화제의 책 10 《일본의 가장 긴 하루》(일본언론으로 보는 종전 50년)

일곱 11 출판정보고속도로의 꿈을 키운다  
(주)한국출판정보통신의 강경중 대표

에세이 특선 12 좋은 책은 누가 만드나-김화영  
13 우리아이들이 읽는 책과 보는 책-권영민

책 읽는 사람 14 이방인의 눈에 뜬 옛날의 붓놀림-정진국  
④ 이미지를 빌려주는 귀한 책

출판 자료 15 《출판광고 실태 조사연구》의

해외신간 리뷰 16 컴퓨터세계 속의 자기 아닌 삶-이봉재  
쉐리 터클의 《스크린 위의 삶》

재미있는 기획산책 17 끈으로 엮으며 배우는 《스트링얼롱》-장익순

서평 18 고병의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용》-전형준  
해겔 《해겔미학》-임석진  
19 마자르 《북한책 뛰어넘기》-이기원  
20 전재경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박원순  
김종석 《교통환경론》-임삼진  
21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김용희  
세이건 《창백한 푸른 점》-이해심  
22 레스텍 《마인드》-한우석  
한정식 《사건의 변모》-이경민

정보 라이트 23 우리책 수출하기 ③-조승훈

책갈피 산책 24 《서울대의 나라》를 읽는 두가지 독법  
‘금기’와 ‘성역’ 드라마틱하게 과장-구승희  
읽히고 설친 사회문제 밝히는 계기-정영섭

이 책 그 사람 26 《만화로 여는 세상》 펴낸 손상익씨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펴낸 한미순씨  
27 《역사의 이름》 펴낸 김호석씨

새책 흐름 28 국내외 희곡집·방송극본 / 문학·예술  
30 교육혁신 진단한 관련서들 / 교육·어린이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이중환

표지 사진 / 정진국